

# 젊은 클래식 거장들 릴레이 광주 공연

쇼팽 콩쿠르 우승 라파우 블레하츠  
김봄소리에 협연 제안 '세계 투어'  
16일 문화전당서 듀오 콘서트  
김다미·이택기 19일 금호아트홀



라파우 블레하츠·김봄소리



김다미·이택기 ©Jino Park

세계가 실력을 인정한 젊은 클래식 거장들이 사흘 간격으로 광주에서 듀오 연주회를 연다.

스무 살에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라파우 블레하츠(34)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31), 김봄소리(30)와 이택기(21)가 오는 16일과 19일 잇따라 광주 관객을 찾는다.

16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리는 '라파우 블레하츠&김봄소리 듀오 콘서트'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해 한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로 이어지는 투어의 하나다.

두 사람의 연주는 음반으로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지난달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그라모폰과 포레, 드뷔시, 시마노프스키, 쇼팽 음악을 녹음한 앨범을 공개했다.

블레하츠는 쇼팽 콩쿠르에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 이후 30년 만에 배출된 폴란드 출신 우승자다. 그는 루빈스타인, 하라세비치, 짐머만을 잇는 폴란드 대표 피아니스트로 평가되고 있다.

두 연주자의 조합은 블레하츠가 김봄소리에 '리브랄'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블레하츠는 지난 2016년 김봄소리가 출현한 비엔나아프스키 콩쿠르

TV 중계를 보고 그에게 협연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김봄소리는 앞서 지난 2013년 뮌헨 ARD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내외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메일에, '내 이름은 라파우 블레하츠이고 피아니스트입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거 실냐?'고 생각했죠. 가짜 이메일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한 채 답신했는데, 매우 진지한 응답이 돌아왔어요. 정말 놀랐죠. 나와 함께 연주하고 녹음까지 하고 싶어요!"

음반사가 최근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김봄소리는 블레하츠에 대한 존경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4번 F장조', 포레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로 호흡을 맞춘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1899-5566.

김다미는 파가니니 콩쿠르 1위 없는 2위(2010), 하노버 콩쿠르 1위(2012)를 차지하며 일

찌감치 '콩쿠르의 여왕'으로 불렸다. 당시 하노버 콩쿠르는 김다미의 우승과 함께 양인모 4위, 김봄소리 공동 5위 수상 소식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다미는 피아니스트 이택기와 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여는 듀오 리사이틀에서 만날 수 있다. 이택기는 2014년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콩쿠르에서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했다.

금호연재 출신인 김다미는 금호아시아문화재단 단으로부터 1740년 제작된 도미니쿠스 몬타나나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택기와 손잡고 슈베르트 음악으로 무대를 채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나 a단조, 작품 385',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듀오', 작품 574' 그리고 슈베르트가 죽기 직전 남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환상곡 C장조 작품 934'로 명기(名器)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전석 3만원(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등산 판타지아-사유의 가상 정원'

## 관객 따라 변하는 '무등산 판타지아'

소아미술관 25일까지 박상화 미디어아트전

미디어 아티스트 박상화 작가는 지난해 열린 2018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서 관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 박 작가의 '무등산 판타지아' 시리즈는 마치 정원을 거닐듯 작품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관객들이 작품에 다가갈 때마다 센서가 반응, 다양한 영상을 보여준다.

이전 신작 '2019 무등산 판타지아-사유의 가상정원 Ver.2.0'은 관객과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강화했다. 센서 8개를 부착한 작품은 관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무쌍한 무등산의 풍경을 보여준다. 꽃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지는 등 무등산의 사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같은 주제로 오래 작

업하며 깊어진 사유와 기술의 업그레이드로 진일 또한 작품은 센서를 이용한 영상과 음향의 변환 등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전시장에는 의자를 배치 편안히 사유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작들은 삭막하고 건조한 현대인들의 삶에 변화와 새로운 상상으로 채워줄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며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한편 대자연의 변화무쌍한 풍경들과 조우하고 동화해가는 인생 여정이 상상에서 의해 복원되고 새롭게 그려지는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말한다.

미술관 카페가 자리한 본관에는 기존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비엔날레 전시 당시 모니터 작업으로 선보인 '무등산도원경유람'과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목포 원도심 풍경을 담은 비디오 작품 'Inner Dream-서산동'도 전시하고 있다. 문의 061-371-8585. /김미은 기자 mekim@

## 따뜻한 시선으로 본 다양한 도시 풍광

김욱진전 24일까지 광산구 장덕도서관 아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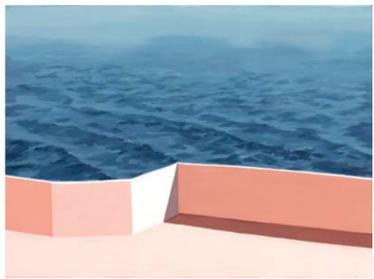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본 도시 풍경.' 서양화가 김욱진 작가 개인전이 오는 24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장덕도서관 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Urban Scener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다양한 도시 풍광을 담아낸 25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보고, 느끼는 것 등 접점 주변의 소재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김 작가는 가로등과 어우러진 도심의 건물 등 일상의 풍경들을 포착해 아크릴로 표현해내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사무국장인 김 작가는 지난해 달빛갤러리 전시를 비롯해 7회 개인전을 열었고, 동경아트 100인 초대전 등 60회 그룹전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는 생활공간 가까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장덕도서관과 광산문화원이



'terrace'

매월 이어가고 있는 '아트갤러리 전'의 하나로 마련됐다. 문의 062-960-399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배달의 민족' 한명수 특강

14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우아한형제들' 한명수(사진) 최고광고제작책임자(CCO·Chief Creative Officer)가 오는 14일 광주에서 특강한다.

한명수씨가 소속된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최대 이용객수를 기록하고 있는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TV·온라인 광고와 서체 등은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 4층 오픈랩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광주콘텐츠포럼이 주최하는 6번째 G워크숍이다. 한명수씨는 '삶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유연한 사고'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홈페이지(gckl.kr)에서 접수한다. 문의 062-350-9348. /백희준 기자 bhj@



## 광주호른사운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13일 금호아트홀

광주호른사운드 앙상블(사진)이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5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지난 2016년 호른 연주자 20명이 결성한 광주호른사운드엔 정기 연주회 등을 열며 금관악기 호른의 부드럽고 온화한 매력을 알리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광주호른사운드 단장을 맡고 있는 장현통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목포시향 상임 단원으로 활동하는 김욱길씨가 악장을 맡고 영국

런던 왕립음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박성국씨가 명예교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선보이는 곡들은 모차르트와 뒤카, 라이네케, 슈트라우스 부자, 라인베르거, 글리에르, 도플러 등의 호른곡·협주곡이다. 무대 마지막에 단원들은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하며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의 조합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치연(피아노), 이혜리(오보에), 신유정(플루트), 김연호(바이올린)가 협연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8121-334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